

강진 가우도, '향기의 섬'으로 거듭난다

수국·천리향 등 식재...해상전망데크 설치 경관 조성도 출렁다리·모노레일 내년 준공 체류형 관광지 거듭날 듯

강진 가우도가 '향기의 섬'으로 새로 태어난다. 10일 강진군에 따르면 가우도가 향기의 섬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수국, 천리향, 만리향과 해당화, 라일락, 치자나무 등 다양한 종류의 꽃과 나무를 섬 전체에 심었다.

가우도 마을 어귀에 섬터를 설치하고 천리향, 치자나무 등을 심은 벽돌 화단도 조성했다. 숲속 산책길 어귀에 산과 바다를 아우르는 280㎡ 넓이의 해상 전망 데크를 새롭게 설치했다. 주민들도 집 앞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준 꽃을 심고 화단을 정비하는 등 '향기의 섬'에 걸맞은 가우도 경관 조성 작업에 함께 했다.

강진군은 가우도가 강진의 대표 관광지를 넘어 남해안 거점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시작한 가우도 출렁다리 설치공사는 내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새롭게 선보일 가우도 출렁다리는 폭 1.8m, 길이 150m다. 출렁다리로 편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시점부와 종점부에 진입 데크를 설치할 계획이다.

가우도 섬 정상에 위치한 청자타워를 오르내릴 모노레일도 설치한다. 총사업비 40억원(국비 20억원)을 투입해 저두 방면 입구와 청자타워 양쪽에 승하차장을 설치하고 60인승(30인승×2량) 차량과 264m의 모노레일을 건다.

청자타워 진입로 경사가 심해 노약자와 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오르기 쉽지 않은 불편함이 있었다. 강진군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것이다.



강진 가우도가 수국·천리향·해당화·치자나무 등 다양한 꽃과 나무로 어우러진 '향기의 섬'으로 새로 태어난다. 오른쪽은 가우도 전망데크 <강진군 제공>

강진군 관계자는 "가우도가 향기 나는 꽃·나무 식재는 물론 내년 출렁다리·모노레일 준공 등 새로운 관광자원을 확충해 체류형 관광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코로나19로 지난 3월5일부터 휴업한 가우도 쥘트랙 운영을 재개했다. 지난 향

금 연휴 기간 쥘트랙 이용객은 1200여명을 기록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장성군, 지역 발전·미래 10년 먹거리 구상 착수

중장기 종합발전연구용역 보고회 '마을학교 지원센터 건립' 제안도

장성군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미래 10년을 위한 먹거리 구상에 착수했다. 10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유두석 군수와 차상현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성 비전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서는 분야별 자문위원 위촉에 이어 현재-미래 먹거리 발굴 방향 설정과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최미숙 장성교육장은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센터 건립 계획과 학생·지역주민이 함께 학교를 공유하는 '마을학교 지원센터 설립' 방안 등을 제안했다.

김재철 광주전남연구원 자문위원은 중장기 발전계획 비전이 공직자와 주민 사이에 공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자원과 공간 정책, 사람에 대한 정책, 자치·협업·행정 시스템의 변화 등을 제안했다.

박산 자문위원은 지난 10년 간의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구·군민행복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현실적인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성군은 보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향후 중장기 계획 수립 과업에 반영할 방침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중장기 정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논의된 안건들이 옐로우시티 장성의 미래 건설을 위한 주춧돌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성군은 지난 7일 유두석 군수 주재로 '장성비전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장성군 제공>

원하는 물건 즉석 제조 '메이커 스페이스' 선정

장흥군, 5년간 6억9000만원 받아

장흥군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는 3D 모델 파일과 다양한 재료들로 소비자가 원하는 사물을 즉석에서 만들어(printing)낼 수 있는 작업 공간을 말한다.

'장남진 YOUTH 메이커스페이스'란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 5년간 진행된다.

올해 구축·운영비는 2억1000만원, 다음해부터는 4년간 매년 1억2000만원씩 총 6억9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은 장흥군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하고, 전라남도, 장흥군, SW융합교육협동조합이 참여기관으로 구성됐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제조업 자체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일반 개인도 최종 완제품을 생산해 내는 '개인 제조업' 운영의 기회를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18년부터 5년 동안 매년 60여 개소를 선정해 총 5년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청소년과 주부, 직장인, 농업인 모두에게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코딩과 3D프린터 등 각종 메이킹 기술을 보급할 수 있게 됐다"며 "누구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기술 습득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kykim@kwangju.co.kr

너릿재·화순광업소·화순군청앞 5·18 사적지 됐다



화순군청 앞 5·18 사적지 표시석

화순군은 화순군청 앞 일대와 너릿재, 화순광업소 등 3곳이 전남도 지정 5·18민주화운동 사적지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화순군청 앞과 화순경찰서, 화순경찰서 사거리, 옛 화순시내버스터미널은 사적지명인 '화순군청 앞 일대'로 묶여 지정된 장소로는 총 6곳이다.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1980년 5월21일 광주에서 온 차량시위대가 화순을 일대에서 '전두환 퇴진', '계엄령 해제'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

였다. 화순군민 2000여명도 '화순군청 앞 광장을 가득 메우고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했다.

시위대는 '화순경찰서'에서 총과 수류탄 등을 확보했고 화순경찰서 사거리에서 시위를 벌였다. 옛 화순시내버스터미널에서 어머니들이 시위대에게 주먹밥과 빵 등의 음식을 제공했다.

화순광업소에서는 이성진 등 화순군 청년 14명이 트럭 7대에 화약 2649상자와 뇌관 355개, 도화선 4600m를 싣고 광주로 넘어가 광주시민군 측에

남겼다.

너릿재는 화순군민들이 다이너마이트와 화약 등을 광주시민군에게 건넨 길목이었다. 계엄군이 광주 봉쇄작전을 벌이며 무차별 총기를 발사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

화순군 관계자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광주시민들을 돕기 위해 분연히 일어났던 화순군민들의 의로운 정신을 계승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 상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단 QR코드를 참고하세요

한국 신협은 117개국 2400조 자산 규모의 세계신협연합회 아시아 회장국으로서 전 세계 빈곤 퇴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알고계시나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 고금리 대출을 3.1%~8.15%로 대환해 드리는 815 대출
- 3~4억 이상 50세 이상 서민을 위한 무보증 무담보 대출
- 3~4억 이상 50세 이상 서민을 위한 무보증 무담보 대출
- 50세 이상 5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 대출
- 저금리 소상공인 경영지원 대출
- 저금리 소상공인 경영지원 대출

평생 어부바 신협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신사기(신용등급 등)를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사채 정리 운동 실시 기간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